

제2의 '별그대' 노리는 귀신, 천사, 인어

판타지 드라마의 안방 공습

‘야경꾼일지’ ‘하이스쿨’ ‘잉여공주’ 판타지적 요소 가미 시청자 공략 기발한 소재…공감대 형성이 관건

귀신과 천사, 인어 등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발한 소재들이 판타지 장르의 외피에 싸여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

톱스타와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인의 사랑을 그린 SBS ‘별에서 온 그대’가 판타지 로맨스의 정점을 찍은 가운데 새 작품들도 올해 여름 제2의 ‘별그대’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첫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일지’는 ‘태왕사신기’와 ‘해를 품은 달’을 잇는 판타지 로맨스 사극 부활의 청신호를 켜다. ‘조선의 퇴마사’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귀신을 보는 왕자, 궁중에 숨어있는 각종 귀물, 부활을 꿈꾸는 이무기 등 신비로운 소재를 등장시키고 있다. 한 편의 판타지 만화를 보는 듯한 장면들을 완성도 높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며 방송 1회 만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KBS 2TV 금요드라마 ‘하이스쿨:러브 온’은 인간 세계에 호기심이 많은 천사가 주인공이다. 순수하고 엉뚱한 천사 역은 그동안 스크린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김새론이 열연 중이다. 기존의 청소년 드라마 장르에 천사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해 여름 방학을 맞은 10대

시청자를 공략하고 있다.

7일 첫 방송을 앞둔 케이블채널 tvN 새 목요드라마 ‘잉여공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동화 ‘인어공주’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사랑을 찾아 서울로 찾아온 주인공 인어공주가 취업준비생들이 모여 사는 ‘잉여하우스’에서 생활하며 펼치는 이야기를 그럴 예정이다.

세 작품 모두 현실과 허구를 오가는 판타지가 큰 줄기를 이루지만 ‘야경꾼일지’는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와 대립, ‘하이스쿨:러브온’은 입시경쟁에 허덕이는 청소년들, ‘잉여공주’는 낮은 취업률에 가슴앓이하는 청년 등 현실적인 모습을 곳곳에 녹여내 결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야경꾼일지’의 제작사 래몽래인 관계자는 “판타지의 경우 기술적인 기대치가 다른 장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등 영상의 완성도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재의 기발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청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드라마 속에서 상상의 나라가 펼쳐진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가 판타지 장르의 주요 소재로 쓰이면서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사진은 MBC ‘야경꾼일지’·tvN ‘잉여공주’·KBS 2TV ‘하이스쿨:러브온’의 한 장면.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

사진제공 | KBS·MBC·t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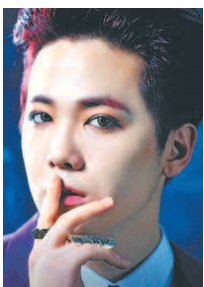
FT아일랜드 이홍기 ‘멀티 한류’ 이끈다

드라마 이어 영화·뮤지컬도 히트 예감 패션디자이너·네일아트까지…풍광 활동

밴드 FT아일랜드의 이홍기(사진)가 음악과 영화, 네일아트, 패션 디자인 등 여러 방면에서 ‘멀티 한류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가수 겸 연기자로 해외에서 주목받는 경우는 많지만 이홍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눈에 띄는 히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홍기는 10일 뮤지컬 배우로서 일본 팬을 만난다. 도쿄 분카무라 오차드홀에서 상연되는 뮤지컬 ‘뱀파이어’가 그 무대다. 개막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됐다. 뮤지컬 휴식일인 15일엔 ‘2014 에이네이션’, 16~17일 ‘2014 서머소닉’ 등 일본을 대표하는 록 페스티벌에 잇달아 출연하고, 9월14일 ‘2014 이나즈마 록 페스티벌’에도 참가한다.

이홍기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디자인부터 제작 전반을 지휘하는 패션브랜드 스킵홍은 6월 론칭 직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소



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주얼리, 가방, 티셔츠 등 맞춤형 제작도 많아 예약판매를 하고 있고, 주문이 밀려 적어도 2주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물론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어권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홍기는 작년 남성 네일아트 도서 ‘이홍기 네일북’을 발간해 한일 양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작년 12월 열린 일본 네일아트 어워즈에서는 외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이홍기는 가을부터는 다시 영화와 드라마로 한류열풍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소설가 바바라 오코너 원작의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캐스팅됐고, 10월 방송하는 SBS 주말드라마 ‘모던 파머’에도 출연한다.

김현정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 @ziodadi

임수향 ‘임성한 신작’ 고사…캐스팅 난항

10월 첫 방송 앞두고 신인 섭외 주력

말도, 탈도 많은 임성한 작가의 새 드라마가 첫 방송을 앞두고 ‘빠져’내고 있다. 10월부터 방송 예정인 MBC 일일드라마 ‘손짓’(가제)이 여주인공 자리를 놓고 또 캐스팅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임 작가는 극중 여주인공을 찾기 위해 400여명의 신인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캐스팅 오디션을 진행했지만, 마음에 드는 연기자를 찾지 못해 2011년 ‘신기생뎐’의 주연을 맡았던 임수향(사진)을 다시 캐스팅에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임수향 측과 임 작가를 포함해 제작진은 최근 출연 마지막 단계인 계약서를 쓰기 전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결국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신



인 연기자들만 캐스팅하는 것으로 유명한 임 작가가 평소 소신을 꺾으면서까지 선택한 임수향을 포기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임 작가가 직접 임수향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이 불발된 것은 서로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막장 드라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는 점도 서로에게 부담이 됐던 것 같다”면서 “이제 신인 연기자 위주로 다시 캐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 @mangoostar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C “이혼한 지 얼마 안돼 조심스러워” 열애 인정



가수 김C(김대원·43·사진)가 유명 스타일리스트 박모 씨와 교제(스포츠동아 8월5일자 19면 단독보도) 중임을 인정했다. 김C 소속사 디컴퍼니는 5일 “열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가 일반인이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과 이야기가 잘 통하는 등 서로에게 상당부분 의지하면서 가까워졌다.

엑소 공식 팬클럽 ‘엑소-엘’ 출범…국내외 팬 모집

남성그룹 엑소의 공식 팬클럽 ‘엑소-엘’(EXO-L)이 출범한다. 5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팬클럽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국내외 팬들을 모집한다. ‘엑소-엘’은 ‘엑소-러브’(LOVE)의 줄임말로, 알파벳 순서상 ‘L’이 ‘K’와 ‘M’ 사이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엑소-케이와 엑소-엠의 중간에서 이들을 사랑하는 팬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에이핑크, 10월 ‘노노노’로 리진출…도쿄 쇼케이스

여성그룹 에이핑크가 10월22일 일본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데뷔싱글 ‘노노노’를 발표하고 현지 진출에 나선다. 에이핑크는 4일 도쿄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일본 데뷔를 직접 발표했다. ‘노노노’는 에이핑크 멤버들이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는 노래로, 국내 음원시장에서 통련하며, 대중적으로 에이핑크란 이름을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노래다. 에이핑크는 현지 진출에 앞서 유료 팬클럽 판다 재팬(PANDA JAPAN)을 결성했으며, 최근 회원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

전지현·김병만 한국방송대상 수상…내달 3일 시상식

전지현과 김병만이 제41회 한국방송대상을 받는다. 5일 한국방송협회는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0개 부문과 개인상 25개 부문의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SBS ‘별에서 온 그대’로 신드롬 가까운 인기를 모았던 전지현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병만족을 이끄는 족장 김병만이 각각 연기자상과 코미디언상자로 결정됐다. 작품상에는 KBS 2TV 월화드라마 ‘굿닥터’,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 등 29편이 선정됐다. KBS 아나운서 한상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김상중 등이 개인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방송의 날인 9월3일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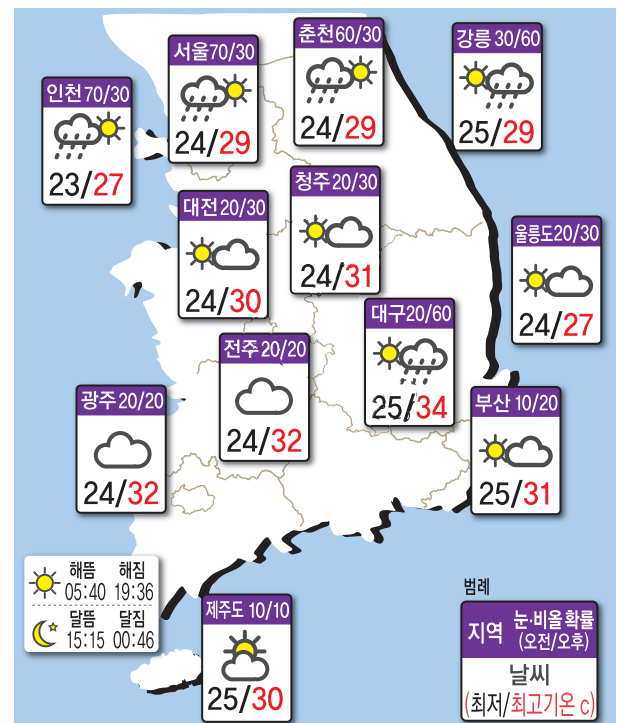
‘안마방 출입 논란’ 상추, 8일 제대…전역행사 생략

합참함무 마이티마우스 상추(32·본명 이상철)가 전역식 없이 조용히 전역할 예정이다. 5일 상추의 소속사 YMC 엔터테인먼트는 “8일 제대 예정인 상추는 제대 당일, 부대 앞에서 취재진 인터뷰 등 별도 행사 없이 전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동안 여러 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조용히 제대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추는 지난해 7월 군인 신분으로 안마시술사 출입과 장기입원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편집 | 고희일 기자 ico@donga.com·김정호 기자 minigram@donga.com

오늘의 날씨

8월 6일 수요일 (음력 7월 11일)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7일(목) 23/29, 22/29, 24/29, 24/32, 24/29, 25/30. 8일(금) 24/30, 22/30, 25/31, 24/31, 23/27, 25/29.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구독신청 1588 2020
편집인	최현우	편집부	02 2020 1032	FAX 02 2020 1015
인쇄인	이정호	스포츠1부	02 2020 1044	www.sportsdonga.com
편집인	이정호	스포츠2부	02 2020 1041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편집국장	양성동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광고국장	이승욱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2008년 3월 24일 창간
		사건부	02 2020 106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해적’

‘명량’의 복병은 ‘해적’

‘명량’ 최단기간 1000만 돌파 기대 속 ‘해적’ 오늘 개봉…최대 승부처 될 듯

진짜 승부처는 6일이다. 7월30일 개봉 이후 ‘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최민식 주연의 ‘명량’이 마침내 6일 막강한 경쟁작과 맞닥뜨린다. 손예진·김남길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해적)이다. 파죽지세 흥행 덕에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명량’이 그 흥행세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받는 ‘해적’과 맞붙어 이날 어떤 결과를 얻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명량’은 극장가 패권을 쥔 상황. 5일 600만(영화진흥위원회) 관객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또 세웠다. 국내 개봉 영화 중 가장 빠른(7일) 600만 관객 돌파다. 4일에는 평일 일일 관객수 기록마저 갈아 치웠다. 개봉 3일째였던 1일의 평일 하루 최다 관객(86만명)을 뛰어넘어 98만명을 모았다.

영화계와 극장가에서는 ‘명량’의 1000만 관객 동원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

‘명량’

다. 흥행세가 유지된다면 개봉 2주째 주말인 8일부터 10일 사이 1000만 흥행이 가능할 것 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도 복병은 있다. 바로 ‘해적’이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정통사극 ‘명량’에 비해 ‘해적’은 조선 건국을 배경으로 옥쇄를 삼킨 고래를 잡으려는 해적과 산적의 대결이란 독특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코미디로 상영시간 2시10분을 깬 채운 덕에 휴가와 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관객 동원을 기대해볼 만하다. ‘명량’ 측이 관객 동원 예상치를 쉽게 전망할 수 없는 이유도 ‘해적’이 발취할 조반 흥행세에 대한 ‘예측불허’ 분위기 탓이다.

5일 ‘명량’의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뜨거운 흥행 열기에도 “수요일(6일)이 지나봐도 흥행 전망을 살필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해적’의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경쟁력 있는 영화”라며 해를 만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 @madeinharry